

공부로 이끄는 힘

완자 공부력

교과서 문해력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4B

| 정답과 해설 |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배출되다

2 ④

3 ㉠

4 ②

5 교통 / 환경 / 주택

6 ①

7 ③

8 ③



풀이

- 1 '밖으로 내보내지다.'는 '배출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2 '배출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내보내지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물이나 빛 등이 새거나 빠져서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의 '흘러나오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 ㉡은 '배출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차단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의 '배출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내보내지다.'라는 뜻이다. ㉠은 '들여놓다'의 뜻이다.
- 5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 집을 지으면 주택 문제를, 쓰레기 양을 줄이고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면 환경 문제를,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고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6 ㉠의 '배출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내보내지다.'라는 뜻으로, '나오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식물성 플랑크톤은 양분을 만들 때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한다. 고래의 똥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도록 도와므로 이산화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 8 이 글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고, 고래의 똥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고래의 똥이 이산화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1 ① ㉠

② ㉡

2 ②

3 ②

4 ①

5 ① (막대그래프) | 꺾은선그래프

② (막대그래프 | 꺾은선그래프)

6 ④

7 ②

8 ① ③

② ③



풀이

- 1 ①의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이고, ②의 '하강하다'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오다.'라는 의미이다.
- 2 ①, ③, ④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의 낱말이지만, ②는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위로 받쳐 버틴다는 뜻의 낱말이다.
- 3 방 안에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며 열을 전달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며 방이 따뜻해진다.
- 4 ㉠의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다. ㉡는 '하강하다'의 뜻이다.
- 5 ①은 수량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막대그래프이고, ②는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나타낸 꺾은선그래프이다.
- 6 꺾은선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양이 변화하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 7 ㉠의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위에서 아래까지의 길이가 길어지다.'의 뜻을 가진 '높아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① 육지 모형이 있는 수조 속에서 물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②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과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1 (온전하게 | 부족하게)
(바꾸다 | 유지하다)

2 ③

3 ①

4 ①

5 ① O
② X

6 한복 / 보전

7 ①

8 (짧은 | 오랜)

(훼손되기 전 | 훼손된 후)

(보전하기 | 보충하기)

9 ①



풀이

- 1 '보전하다'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이다.
- 2 '보전하다'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써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를 보전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3 '보전하다'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오염된 하천'에는 '보전하다'가 아닌 '관리하다', '정화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의 '보전하다'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이다. ㉡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여 알게 하다.'라는 뜻의 낱말은 '알리다'이다.
- 5 ① 한복의 독특한 디자인과 조화로운 색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② 한복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 6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자 아름답고 우아한 한복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7 ㉠의 '보전하다'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상태나 태도 등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다.'의 뜻을 가진 '지키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생태계는 한 번 훼손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생태계가 훼손되기 전에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
- 9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25~27쪽



정답

1 ①

2 ②

3 (개막했다 | **개선했다**)

4 ②

5 매체 자료

6 ① L

2 C

3 T

7 ③

8 (지식 | **의견**)(곤란 | **개선**)

(의사 | 음성)

(실천 | 활용)



풀이

- 1 '개선하다'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 2 '보완하다'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개선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3 '개막하다'는 '공연이나 행사를 시작하다.'라는 뜻이므로, 괄호 안에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개선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4 ㉠의 '개선하다'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은 '조작하다'의 뜻이다.
- 5 매체 자료에는 사진, 동영상, 표와 도표 등이 있으며,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 6 표는 여러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동영상은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으며, 사진은 대상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7 '개선하다'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은 '개선하다' 대신 '세우다', '짓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8 공동의 일을 결정할 때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의 장단점과 개선하면 좋은 점 등을 이야기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 그리고 함께 결정한 사항을 실천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가르치다 | 알리다)

2 ③

3 ㉠

4 ①

5 ②

6 ②

7 ②

8 지역문제

9 ① (면담한다 | 면제한다)

② (결정한다 | 결석한다)

③ (참견한다 | 참여한다)



풀이

- 1 '보고하다'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다.'라는 뜻이다.
- 2 '보고하다'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알리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은 '보고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조절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의 '보고하다'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다.'라는 뜻이다. ②는 '논쟁하다'의 뜻이다.
- 5 이 글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보고서를 쓸 때 인터넷 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참고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7 지역문제의 발생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의미가 되도록 '알리다', '보고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으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다.
- 8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지역문제라고 한다.
- 9 지역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주민을 만나 면담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정하고, 결정된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 중, 기후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기후 변화의 현상과 원인,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살펴보며 글을 읽어 보세요.

1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의미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고, 폭염, 한파, 가뭄, 홍수, 폭설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 기후변화 현상은 예전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 가뭄 같은 현상이 예전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생깁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가축을 키우기 위해 숲을 없애는 일도 문제입니다. 이런 활동 때문에 이산화 탄소, 프레온 가스 같은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고,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여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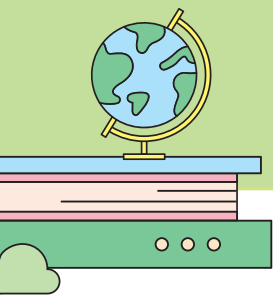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사람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3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과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봄꽃이 더 일찍 피고,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기온이 올라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와 산불이 더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④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⑤

⇒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개선하여 화석연료 대신 햇빛이나 바람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등 소중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법 ① 기후변화 대응 방법 ② 기후변화 대응 방법 ③ 기후변화 대응 방법 ④

⇒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기후변화

2 ①

3 ① X

② X

③ O

4 ②



- 1 이 글은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현상인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 기후변화가 생기는 원인에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다. 주요 원인은 사람의 활동이다.
- 3 ① 겨울이 짧아져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②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 ③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 4 ①은 '상승하다'의 뜻이고, ③은 '배출되다'의 뜻이고, ④는 '보고하다'의 뜻이고, ⑤는 '개선하다'의 뜻이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37~39쪽



정답

1 ②

2 ① ㉠

② ㉡

3 ①

4 ①

5 ① ㉡

② ㉠

6 ③

7 문제 / 좁혀

8 ① (긍정적 | 비판적)

② (거부 | 관용)



풀이

- 1 첫 번째 문장은 '너비를 작게 하다.'의 뜻을 가진 '좁히다'가,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나 범위 등을 작게 하다.'의 뜻을 가진 '좁히다'가 들어가기에 알맞다.
- 2 ①의 '좁히다'는 '너비를 작게 하다.'라는 뜻이다. ②의 '좁히다'는 '내용이나 범위 등을 작게 하다.'라는 뜻이다.
- 3 ㉠의 '좁히다'는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므로 '너비를 작게 하다.'라는 뜻이다.
- 4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좁힌 것을 찾으려면 ㉡의 평행선보다 두 선이 가까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 5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두 선이 서로 가까워지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넓히면 두 선이 서로 멀어진다.
- 6 ㉡의 '좁히다'는 '내용이나 범위 등을 작게 하다.'라는 뜻으로, ③의 '좁히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 ②의 '좁히다'는 '너비를 작게 하다.'라는 뜻이다.
- 7 이 글은 학급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8 ① 친구들이 낸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 보는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② 친구끼리 의견을 모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옳다 | 그르다)

2 ②

3 ①

4 ①

5 ②

6 타당

7 ②, ④

8 ③

9 보전



풀이

- 1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 2 '정당하다'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의 '타당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①의 밑줄 친 부분에는 '타당하다'가 아닌 '반복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①의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②는 '괴상하다'의 뜻이다.
- 5 이 글은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글을 쓴 이유와 의견이 무엇인지,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 7 ④의 '타당하다'는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의 뜻을 가진 '마땅하다'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의 뜻을 가진 '정당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산업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환경을 개발하면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면 그 피해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며 개발을 해야 한다.
- 9 환경이 파괴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다. 그래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정답

- 1 ① (요구 | 양보)
 ② (협의하다 | 협소하다)
 2 ①
 3 ㉠
 4 ②

- 5 (거절하여 | 타협하여)
 6 ③
 7 ③
 8 ④



풀이

- 1 '타협하다'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라는 뜻이다.
 2 ②~④는 서로 의논한다는 뜻의 낱말이지만, ①은 어떤 사물을 삼가거나 기피한다는 뜻의 낱말이다.
 3 ㉠, ㉡은 '타협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말다툼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의 '타협하다'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라는 뜻이다. ㉡은 '격렬하다'의 뜻이다.
 5 이 글에서 회사는 제안 내용을 두고 회사 직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6 이 글에서 회사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종이 빨대를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7 '타협하다'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라는 뜻으로, ③은 '타협하다' 대신 '주장하다', '고집하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8 주민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결정할 때는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다음,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 | |
|---|--|
| <p>1 (작용 가열)
(탐사하다 움직이다)</p> <p>2 작동하고</p> <p>3 (작동하며 정지하며)</p> <p>4 ①</p> <p>5 ① ㉠
② ㉡
③ ㉢</p> | <p>6 발표</p> <p>7 ③</p> <p>8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높아지면 낮아지면)</p> <p>9 ①</p> |
|---|--|



풀이

- '작동하다'는 '기계 등이 작용을 받아 움직이다.'라는 뜻이다.
- '세탁기가 돌아가다.'의 '돌아가다'는 '기계 등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의 '작동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괄호 안에는 '기계 등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작동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①의 '작동하다'는 '기계 등이 작용을 받아 움직이다.'라는 뜻이다. ②는 '꿈적거리다'의 뜻이다.
- 매체 자료에는 소리나 음악과 같은 청각 매체,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동영상 매체, 그림, 도표, 사진과 같은 시각 매체가 있다.
- 이 글은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이 더 다채로워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의 '작동하다'는 '기계 등이 작용을 받아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기계나 공장 등이 가동되거나 운영되다.'의 뜻을 가진 '움직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 들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 열기구의 공기 주머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져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공중에 뜬다. ②는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치이다.





정답

1 ① ㉠

② ㉡

2 ②

3 ①

4 ②

5 ①

6 ①

7 ① X

② O

8 ① 소비자

② 생산자

③ 분해자



풀이

- 문장에서 '무엇을' 분해했는지 확인하여 '분해하다'의 뜻을 구분해 본다. ①은 '폐가전제품'을 분해한다고 하였으므로 '분해하다'가 ①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음식물'을 분해한다고 하였으므로 '분해하다'가 ②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컴퓨터를 분해하다'에서 '분해하다'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러 부품으로 하나의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의 '조립하다'와 뜻이 반대된다.
- ①의 '분해하다'는 장난감을 분해한다는 것으로,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라는 뜻이다.
- 설명서는 기계나 물건 등의 기능이나 사용법 등을 설명한 글이다. 설명서를 읽고 로봇 장난감을 낱말로 나누어 분해해야 고칠 수 있다.
- 설명하는 글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 ①의 '분해하다'는 '한 종류의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화합물로 변화하다'라는 뜻으로, ①의 '분해하다'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 ③의 '분해하다'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라는 뜻이다.
- ① 생물 요소는 동물과 식물처럼 살아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균류나 세균은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해 양분을 얻는다.
- 다른 생물을 먹고 양분을 얻는 동물은 소비자이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은 생산자,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균류는 분해자이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중,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주민 자치란 무엇이며,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 1 우리 지역에 함께 사는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일이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주민 자치라고 합니다. 주민 자치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잘 **작동하는지** 관리하거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육교 승강기 같은 편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 주민 자치란 지역에 함께 사는 주민들이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2 주민 자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의 일이나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며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역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지역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주민들이 주민 자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3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자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주민 투표, 서명 운동, 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근처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다면, 횡단보도 옆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자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은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공공 기관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들은 공청회 참석, 서명 운동, 시민 단체 활동, 민원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자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그러면 주민 자치에 참여할 때, 주민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타당한** 방법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 과정에서 서로의 견이 다를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주민 자치에 참여할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1 ④
- 2 ①
- 3 ①
- 4 참여



- 1 지역의 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① 지역 문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② 주민 자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③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⑤ 지역 문제는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2 시민 문화 공연을 보는 것은 주민 자치라고 보기 어렵다.
- 3 '좁히다'는 '내용이나 범위 등을 작게 하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는 낱말은 '내용이나 범위 등을 널리 미치게 하다.'라는 뜻의 '넓히다'이다.
- 4 이 글은 주민 자치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정하다 | **내놓다**)

2 ①

3 ②

4 ③

5 ① L

② ㄱ

③ L

6 제목

7 ①

8 ②

9 관심 / 지역 경제



풀이

- 1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 2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뜻으로, '의견이나 바라는 사항을 내놓다.'라는 뜻의 '건의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뜻으로, ②에서 '승리한 기쁨을'에는 '제안하다'가 아닌 '만끽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①은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의 뜻을 가진 '제안하다'를 사용하여 누구에게 제안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5 제안하는 내용을 쓸 때는 '~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같은 표현을 주로 쓰고, 제안하는 이유를 쓸 때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때문입니다.' 같은 표현을 주로 쓴다.
- 6 제안하는 글에는 그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인다.
- 7 ①의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②는 '튀기다'의 뜻이다.
- 8 이 글은 지역 알리기의 중요성과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9 지역을 알리는 일은 주민들이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같아지게 | 달라지게)

2 ③

3 ㉠

4 ②

5 ① ㉠

② ㉠

③ X

6 ①

7 ①

8 무게



풀이

- 1 '변화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라는 뜻이다.
- 2 ①, ②, ④는 달라진다는 뜻의 낱말이지만, ③은 알맞게 이용되거나 맞추어져 쓰인다는 뜻의 낱말이다.
- 3 ㉠~㉣은 '변화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참석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의 '변화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라는 뜻이다. ㉠은 '추적하다'의 뜻이다.
- 5 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제안한다. ② 실행한 사업을 평가하여 결과를 보완하거나 개선한다. ③ 예산을 어디에 쓸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다.
- 6 이 글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 7 ㉠의 '변화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라는 뜻으로, '변하여 전과는 다르게 되었다.'의 뜻을 가진 '달라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공기를 더 넣거나 뺐을 때,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는 공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69~71쪽



정답

1 ③

2 ㉠

3 ②

4 ①

5

상	년	성	오	슬	정
코	탐	장	찰	염	득
천	합	야	훈	로	국

6 ①

7 ① (먹이사슬 | 먹이그물)

② (먹이사슬 | 먹이그물)

8 복잡



풀이

- 1 '이어지다'는 '끊어졌거나 본래 따로 있던 것이 서로 잇대어지다.'라는 뜻으로,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뜻의 '연결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 ㉡, ㉢은 '연결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 ㉠의 '연결되다'는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뜻이다. ㉠은 '회복되다'의 뜻이다.
- 4 이 글은 환경을 개발하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5 지역 환경을 개발하면서 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고속 국도와 고속 철도가 건설되어 지역 경제는 성장한다. 그러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 6 ㉡의 '이어지다'는 '끊어졌거나 본래 따로 있던 것이 서로 잇대어지다.'라는 뜻으로,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뜻의 '연결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먹이사슬은 생물들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그물은 생물들의 먹이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8 이 글은 생물들의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73~75쪽



정답

1 (확인해서 | **미루어**)

2 ④

3 ②

4 ①

5 ③

6 ㉠ 4 ㉡ 3

7 ④

8 책

추측

주제 / 내용

존중



풀이

- 1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 2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리다.'라는 뜻의 '짐작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범인을 찾아 달라고'에는 '추측하다'가 아닌 '요청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의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는 '발명하다'의 뜻이다.
- 5 ①, ②는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평행사변형이다. ③은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는 사다리꼴이다.
- 6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따라서 4 cm의 변과 마주 보고 있는 ㉠은 4 cm이고, 3 cm의 변과 마주 보고 있는 ㉡는 3 cm이다.
- 7 ㉠의 '추측하다'는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리다.'의 뜻을 가진 '짐작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먼저 함께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의 제목과 표지를 살펴보고 책의 내용을 추측한다. 책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이나 책의 주제를 생각하며 내용을 정리한다. 독서 후에는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독서 토의를 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1 밀집하다
- 2 ②
- 3 ②
- 4 ②
- 5 ③

- 6 ①
- 7 ③
- 8 ① ㉠
- ② ㉡
- 9 ① ㉠
- ② ㉡



풀이

- 1 '빽빽하게 모이다.'는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이다.'라는 뜻의 '밀집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밀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실존하는 생물, 시설물, 물품이어야 하므로 '시간이 밀집해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3 '밀집하다'는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이다.'라는 뜻으로, '지역문제는 지역 주민들과'에는 '밀집하다'가 아닌 '밀접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의 '밀집하다'는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이다.'라는 뜻이다. ㉠은 '밀착하다'의 뜻이다.
- 5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생태 도시라고 한다.
- 6 이 글에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주거 공간과 도심에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다.
- 7 ㉡의 '밀집하다'는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이다.'라는 뜻으로, '모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고, 표면이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다.
- 9 ① 소행성은 주로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 밀집해 있다. ② 태양 구성원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 중, 달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달의 모양과 표면, 달의 모양 변화를 알아보고, 달 탐사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달 탐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며 글을 읽어 보세요.

1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체 중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달입니다. 달은 둥근 공 모양이고, 회색으로 보입니다. 달 표면에는 어둡게 보이는 곳과 밝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둡게 보이는 곳보다 밝게 보이는 곳에 움푹 파인 충돌 구덩이가 **밀집해** 있습니다.

⇒ 달을 관찰해 보면 둥근 공 모양이며, 표면에 충돌 구덩이가 있습니다.

2 여러 날 동안 달을 관찰해 보면, 날마다 달의 모양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달의 모양은 약 30일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음력 2~3일 무렵에는 초승달, 음력 8~9일 무렵에는 상현달, 음력 15일 무렵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음력 22~23일 무렵에는 하현달, 음력 27~28일 무렵에는 그믐달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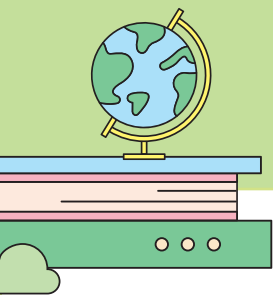
⇒ 달의 모양은 약 30일을 주기로 반복해 변화합니다.

3 사람들은 옛날부터 달에 가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주선을 쏘아 우주 탐사를 시작한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1962년에는 에드워드 화이트가 우주선과 줄로 **연결**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 약 20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천체에 발을 딛는 데 성공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 달 탐사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4 우리나라의 달 탐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202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다누리호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극이 남극보다 더 넓은 지역에 물이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발사해 달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 1 ((밀집해 | 명심해)
(똑같은 | 변화되는)

- 2 ① 초승달
② 보름달
③ 하현달

3 ③

4 ④



- 1 달의 표면에는 어둡게 보이는 곳보다 밝게 보이는 곳에 움푹 파인 충돌 구덩이가 밀집해 있다. 달의 실제 모양은 회색의 둥근 공 모양이지만, 지구에서는 날마다 변화되는 달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 2 달은 약 30일 주기로 반복해 모양이 변화하는데, 음력 2~3일 무렵에는 초승달, 음력 8~9일 무렵에는 상현달, 음력 15일 무렵에는 보름달, 음력 22~23일 무렵에는 하현달, 음력 27~28일 무렵에는 그믐달을 볼 수 있다.
- 3 ㉠의 '연결되다'는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뜻으로, '끊어졌거나 본래 따로 있던 것이 서로 잇대어지다.'라는 뜻의 '이어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4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우주 탐사를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정답

- | | |
|---|--|
| <p>1 (나 남)
(받아들이다 거부하다)</p> <p>2 ③</p> <p>3 ②</p> <p>4 ②</p> <p>5 ① L
② L
③ T</p> | <p>6 대화 / 예절</p> <p>7 ①</p> <p>8 ① (학교 자치 학생 자치회)
② (학교 자치 학생 자치회)</p> <p>9 포용</p> |
|---|--|



풀이

- 1 '포용하다'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다.
- 2 빈칸에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포용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 '포용하다'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작은 글자를'에는 '포용하다'가 아닌 '확대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①의 '포용하다'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다. ①은 '배척하다'의 뜻이다.
- 5 온라인 대화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주고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험담이나 소문을 쉽게 퍼뜨릴 수 있다.
- 6 온라인 대화를 할 때는 예절을 지키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 7 ①의 '포용하다'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 학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의 일을 결정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을 학교 자치라고 하며, 학생 스스로 학교의 일을 운영하고자 만든 모임을 학생 자치회라고 한다.
- 9 학생 자치회는 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 자치회에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정답

1 ① (지키다 | 바꾸다)

2 (위로 | 밑으로)

(위로 | 밑으로)

2 ②

3 ①

4 ③

5 모양 / 방향

6 ①

7 ③

8 ②



풀이

- 1 ①의 '뒤집다'는 '일 등의 차례나 승부를 바꾸다.'라는 뜻으로, ②의 '뒤집다'는 '위가 밑으로 되고 밑이 위로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첫 번째 빈칸에는 '위가 밑으로 되고 밑이 위로 되게 하다.'라는 뜻의 '뒤집다'가, 두 번째 빈칸에는 '일 등의 차례나 승부를 바꾸다.'라는 뜻의 '뒤집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3 ①의 '뒤집다'는 '위가 밑으로 되고 밑이 위로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①의 '뒤집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 ③의 '뒤집다'는 '일 등의 차례나 승부를 바꾸다.'라는 뜻이다.
- 4 도형을 뒤집으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①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이고, ②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이다. ③은 모양이 다르다.
- 5 도형을 뒤집으면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 방향은 변하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 6 ⑥의 '뒤집다'는 '일 등의 차례나 승부를 바꾸다.'라는 뜻이다.
- 7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면 현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고, 현실과 다른 세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두 세계는 닮았지만 항상 똑같지는 않다.
- 8 『흥부와 놀부』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답

- 1 (이치 | 능력)
(알아내다 | 뉘우치다)
- 2 ①
- 3 ①
- 4 ②
- 5 항생제

6	령	개	사	내	드	웅
	잘	터	득	복	선	방
	처	건	병	용	정	곡

- 7 ③
- 8 ①
- 9 (결정합니다 | 면담합니다)
(차단합니다 | 실행합니다)
(선택합니다 | 평가합니다)



풀이

- 1 '터득하다'는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라는 뜻이다.
- 2 '터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고 도리에 맞는 원리이므로 '소식을 터득하다.'는 적절하지 않다.
- 3 '터득하다'는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용암을'에는 '터득하다'가 아닌 '분출하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4 ㉠의 '터득하다'는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라는 뜻이다. ㉠은 '추론하다'의 뜻이다.
- 5 이 글은 '항생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면, 세균이 항생제를 물리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다.
- 7 ㉠의 '터득하다'는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알아내다', '깨닫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이 글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6단계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9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지역문제를 찾아 제안하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 그다음 해결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천한 결과를 평가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부풀다

2 ① ㉠

② ㉡

3 ②

4 ① ㉠

② ㉡

5 ①

6 ① (높아져 | 낮아져)

(부풀어 오른다 | 오그라든다)

② (높아져 | 낮아져)

(부풀어 오른다 | 오그라든다)

7 ②



풀이

- 1 '부피가 커지다.'는 '물체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의 '부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①은 비닐 팩이 부풀어 오른 것이므로 '부풀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우승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은 것이므로 '부풀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3 ①의 '부풀다'는 '희망이나 기대 등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②의 '부풀다'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 ③의 '부풀다'는 '물체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이다.
- 4 원인은 일이 일어난 이유로, 먼저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가 원인에 해당한다. 결과는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일로,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이 결과에 해당된다.
- 5 ㉠의 '부풀다'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이므로 '물체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이다.
- 6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줄어든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풍선은 부풀어 오르고, 온도가 낮아지면 풍선은 오그라든다
- 7 이 글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기체의 부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 1 (문제 | 물질)
(조사하다 | 협의하다)
- 2 ①
- 3 ㉠
- 4 ①
- 5 ①

- 6 ④
- 7 ②
- 8 ① X
② O
- 9 생태 통로



풀이

- 1 '토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다.'라는 뜻이다.
- 2 ②~④는 어떤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뜻의 낱말이지만, ①은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친다는 뜻의 낱말이다.
- 3 ㉠, ㉡, ㉢은 '토의하다'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은 '비교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의 '토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다.'라는 뜻이다. ②는 '탐사하다'의 뜻이다.
- 5 이 글은 토의할 때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며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친구가 대답하기 어려워할 만한 질문을 골라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 7 '토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다.'라는 뜻으로, '물을 흡수하는 방법'에는 '토의하다'가 아닌 '찾아보다', '배우다'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
- 8 ①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투명한 방음벽에는 새들이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인다.
- 9 산에 도로나 터널이 많이 건설되면서, 도로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야생 동물이 많다. 그래서 야생 동물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만들고 있다.





독해 Point 이 글은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중, 우리글인 한글에 대해 살펴보는 글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 대왕은 어떤 분이며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원리, 우수성에 대해 살펴보며 글을 읽어 보세요.

- 1 조선 제4대 왕인 세종 대왕은 백성을 깊이 사랑한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는 과학,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세종 대왕의 업적 ① 신분에 관계없이 관리로 임명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세종 대왕의 업적 ② 토의하며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종 대왕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백성을 세종 대왕의 업적 ③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 세종 대왕은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신분은 상관하지 않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 2 세종 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모양이 복잡하고 글자 수도 많은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은 글을 몰라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 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세종 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 세종 대왕은 한자가 어려워 배우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 3 한글의 자음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기본 글자 ‘ㄱ, ㄴ, ㄷ, ㄹ, ㅇ’에 획을 더해 17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음자는 하늘(·), 땅(ㅡ), 사람(丨)을 바탕으로 한 기본 글자를 서로 결합해 11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모두 24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 한글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4 한글은 기계화에도 매우 적합한 문자입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천지인 자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 ㅡ, 丨’ 세 글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ㅏ’와 ‘ㅑ’는 좌우가 바뀐 모양이기 때문에 ‘·’와 ‘丨’의 입력 순서만 뒤집으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빠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세종 대왕이 만든 한글 덕분입니다.

⇒ 스마트폰의 자판만 보아도 한글은 기계화에 매우 적합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 ②
- 2 자음자 / 발음
모음자 / 사람
- 3 (어려웠다 | 쉬웠다)
(참여할 | 터득할)
- 4 ⑤



- 1 세종 대왕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관리로 임명했다.
- 2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기본 글자 ‘ㄱ, ㄴ, ㄷ, ㄱ, ㅇ’을 만들고, 획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모음자는 하늘(·), 땅(ㅡ), 사람(ㅣ)을 기본 글자로 만들고, 기본 글자를 합쳐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 3 한글 창제 전에는 한자의 모양이 복잡하고 수가 많아 일반 백성들은 익히기 어려웠다. 한글 창제 후로는 원리만 알면 한글을 빠르고 쉽게 터득할 수 있었다.
- 4 ㉠의 ‘부풀다’는 ‘희망이나 기대 등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의 ‘부풀다’는 ‘물체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이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실력 확인

1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06~107쪽

- | | | |
|------------------|---------|---------|
| 1 ㉔ | 2 ㉕ | 3 ㉖ |
| 4 ㉗ | 5 ㉘ | 6 토의했다 |
| 7 추측했다 | 8 개선했다 | 9 ㉙ |
| 10 ㉚ | 11 ㉛ | 12 연결되다 |
| 13 보고하다 | 14 배출되다 | |
| 15 ㉜ 타당하다 ㉝ 타협하다 | | |

1 '작동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2 '터득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3 '보전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4 ㉕은 '불안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5 ㉗은 '복종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6 규칙을 정하기 위해 자세히 따져 논의할 때 '토의하다'를 사용한다.

7 친구의 말투를 듣고 어느 지역에서 전학 왔는지 미루어 생각할 때 '추측하다'를 사용한다.

8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게 만드는 것이므로 '개선하다'를 사용한다.

9 이 문장에서 '변화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지게 되다.'라는 뜻이므로 '달라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첫 번째 문장은 '물체가 늘어나면서 부피가 커진다.'라는 뜻으로, 두 번째 문장은 '희망이나 기대 등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부풀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며, 반대되는 낱말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해 내려오다.'라는 뜻의 '하강하다'이다.

12 구름다리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지게 만들 때 '연결되다'를 사용한다.

13 역사적 인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알릴 때 '보고하다'를 사용한다.

14 식물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밖으로 내보내질 때 '배출되다'를 사용한다.

15 어떤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치로 보아 옳을 때 '타당하다'를 사용한다. 의견이 달라 서로 양보하며 의논할 때 '타협하다'를 사용한다.



2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08~109쪽

- | | | |
|----------------|---------|---------------|
| 1 ㉠ | 2 ㉡ | 3 ㉢ |
| 4 ㉣ | 5 ㉤ | 6 ㉥ |
| 7 ① | 8 ③ | 9 보전하지 |
| 10 작동하지 | 11 ① | 12 ② |
| 13 ①, ④ | 14 포용하다 | 15 제안하다 |

- 9 전통문화를 잘 보호하여 유지할 때에는 ‘보전하다’를 사용한다.
- 10 엘리베이터처럼 기계나 장치가 움직일 때에는 ‘작동하다’를 사용한다.
- 11 이 문장에서 ‘토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12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리다.’라는 뜻의 ‘짐작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13 동영상을 보면서 오래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 익혔다는 문장이 적절하므로 ‘알아내다’와 ‘터득하다’를 사용한다.
- 14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때 ‘포용하다’를 사용한다.
- 15 어떤 일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을 때 ‘제안하다’를 사용한다.
- 1 ‘밀집하다’는 ‘빈틈없이 뽁뽁하게 모이다.’라는 뜻이다.
- 2 ‘배출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내보내지다.’라는 뜻이다.
- 3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다.
- 4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 5 컵의 위와 아래를 서로 바꾸었을 때 ‘뒤집다’는 ㉠의 뜻이다.
- 6 승패가 뒤바뀌었을 때 ‘뒤집다’는 ㉢의 뜻이다.
- 7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학로를 ‘넓히다’를,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도를 ‘좁히다’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 8 ①과 ②의 ‘분해하다’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누다.’라는 뜻이고, ③의 ‘분해하다’는 ‘한 종류의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화합물로 변화하다.’라는 뜻이다.

3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10~111쪽

- 1 추측하다 2 타협하다 3 부풀다
4 개선하다 5 제안했다 6 보고했다
7 터득했다 8 ㉓ 9 ㉔
10 ㉕ 11 ㉖ 12 ㉗
13 ㉘ 14 ㉙ 뒤집다 ㉚ 밀집하다
15 변화되었다 / 연결되었다 / 상승하고

- 1 '추측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2 '타협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3 '부풀다'의 뜻에 해당한다.
- 4 '개선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5 운동하자고 의견을 낼 때 '제안하다'를 사용한다.
- 6 결정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알릴 때 '보고하다'를 사용한다.
- 7 별자리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 깨달아 알아낼 때 '터득하다'를 사용한다.
- 8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의 '보전하다'는 '재산, 이익, 안전 등을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라는 뜻의 '지키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9 문화적 차이를 줄이거나 완화할 때 '좁히다'는 ㉔의 뜻이다.

- 1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작게 만들 때 '좁히다'는 ㉔의 뜻이다.
- 11 무엇을 할지 의견을 나눌 때 '토의하다'를 사용한다.
- 12 기계가 움직여 일할 때 '작동하다'를 사용한다.
- 13 '여러 부품으로 하나의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의 '조립하다'와 반대되는 낱말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라는 뜻의 '분해하다'이다.
- 14 카드 뒷면을 앞면이 보이게 할 때 '뒤집다'를 사용한다. 사람이 아주 뻘뻘하게 모여 있을 때 '밀집하다'를 사용한다.
- 15 영종도의 모습이 바뀌어 달라졌을 때에는 '변화되다'를 사용하고, 섬과 육지가 다리, 고속 국도, 철도로 이어질 때에는 '연결되다'를 사용한다. 또 인구의 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에는 '상승하다'를 사용한다.